

기초지자체 관광의 당일 편중과 체류 전환 결정요인 :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Day-Trip Concentration and Stay Conversion in Local-Government Tourism

: The Case of Ganghwa County, Incheon

고 현 중*
Ko, Hyeon-Jong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자립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하지만, 관광의 지역 기여는 방문객 수가 아닌 방문객의 체류와 지출을 통해 실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사례로 당일 편중의 실태와 체류·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22~2025)의 강화 방문 여행 1,004건이며, 가중 추정과 계절 집중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의 방문 시점 분포는 균등분포와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만큼 계절 편중이 약하여, 성수기 분산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화 관광의 구조적 과제는 극심한 당일 편중(숙박 비율 21.7%)이었다. 셋째, 방문객의 체류와 지출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근접성(수도권 거주)이었으며, 세대·가구소득·가구규모가 이를 보완하였다. 넷째, 준거 지역과의 비교에서 근접성 효과의 부호가 목적지 거리에 따라 반전되어 거리감식 기제가 확인되었다.

* 인천관광공사 대리

논문 접수일: 2026. 8. 12. 심사기간: 2026. 8. 12. ~ 2026. 9. 22. 게재확정일: 2026. 9. 22.

본 연구는 거리감식 이론을 방문 수요에서 방문자당 성과의 질로 확장하고, 근교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의 지렛대가 성수기 분산이 아니라 근접성·세대를 겨냥한 체류 전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관광정책, 당일 편중, 체류 전환, 강화군

This study analyzes the day-trip concentration of tourism used by a basic-level local government as a regional-development instrument, and the policy task of stay conversion, using Incheon's Ganghwa County as a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fiscal self-reliance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e local contribution of tourism is realized not through visitor counts but through length of stay and expenditure, and day-trip concentration constrains local consumption and employment linkages.

Using microdata from the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2022–2025), we analyze 1,004 Ganghwa-visiting trips with weighted estimation, seasonal-concentration indic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First, Ganghwa's seasonal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uniformity, so seasonal-dispersion policy has limited efficacy. Second, the structural problem is a severe day-trip concentration (21.7% overnight). Third, stay and expenditure are governed primarily by proximity (metropolitan residence), together with generation,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size. Notably, a cross-regional comparison shows that the sign of the proximity effect reverses with destination distance, confirming the distance-decay mechanism.

The study extends distance-decay theory to the quality of tourism outcomes and argues that the policy lever for metropolitan-fringe local governments lies in stay conversion targeting proximity and generation, rather than in seasonal dispersion.

□ Keywords: Basic Local Government, Regional Development, Tourism Policy, Day-Trip Concentration, Stay Conversion, Ganghwa County

I. 서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김민영, 2026),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자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관광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발전 수단이지만 그 지역 기여는 방문객 수가 아닌 방문객이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고 소비하는가를 통해 실현된다. 관광 지출은 지역산업연관을 통해 생산·소득·고용으로 파급되며(신창열, 2019), 숙박을 동반한 체류 방문객은 당일 방문객보다 지출과 지역경제 기여가 크다. 따라서 당일 편중이 심한 지자체는 방문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실익이 제약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지방행정 분야에서 정주민구를 넘어 체류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방문자 수는 늘리되 체류시간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실증(서충완·배정아, 2023)은 방문의 양과 체류가 별개의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에 인접한 근교 기초지자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근교 지자체는 높은 접근성이라는 이점을 지니지만, 바로 그 접근성이 당일 방문을 유도하여 체류·소비의 심화를 어렵게 만드는 양면적 조건에 놓인다. 본 연구가 여러 기초지자체 가운데 강화군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는 수도권에서 교량으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본토와 분리된 도서 지역이라는 경계적 특성을 지녀 근교의 높은 접근성과 목적지로서의 지리적 독립성을 함께 갖춘 전형적 근교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지만 방문객의 절대다수가 서울·경기 거주자여서 근교 기초지자체가 겪는 수도권발 당일 편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인돌 유적·전등사 등 역사문화 자원, 분단·평화라는 안보 관광 자원, 갯벌·도서라는 자연 자원이 복합되어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않는 저계절성 관광지의 특성을 뚜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화는 접근성은 높으나 체류로 이어지지 않는 근교 기초지자체 관광의 구조적 과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분석 대상이며, 그 결정 구조의 규명은 김포·양평·가평 등 유사한 조건의 다른 근교 지자체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화 관광에 관한 기존 연구는 관광지 속성·축제·만족도 등 개별 주제에 집중되어(이윤희, 2018), 전국 대표성을 갖춘 국가통계에 기반하여 기초지자체 관광의 성과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지방행정·지역발전의 관점에서 규명한 실증은 드물다. 국내 관광 계절성 연구 역시 계절 편중이 뚜렷한 강원·제주에 집중되어(양희원·송운강, 2013), 계절 편중이 약한 수도권 근교 지자체의 성과 결정 구조는 미탐구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공백은 국가승인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근교 기초지자체의 당일 편중 구조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전환 과제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강화 관광의 당일 편중은

어느 수준이며, 준거 지역 대비 계절성은 얼마나 낮은가? 둘째, 방문자의 체류(숙박)와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체류·지출의 결정 구조는 세대에 따라 어떻게 이질적인가? 이다.

이를 통해 강화가 저계절성·고당일성 근교 기초지자체 관광지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체류·지출을 결정하는 근접성·세대·인구통계의 역할을 위계적 회귀로 분해하며, 그 결과로부터 지방정부(강화군·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체류 전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시군구(강화군) 단위로 활용하여 일차설문·사례에 의존해 온 기존 연구와 달리 대표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이론 측면에서 거리감쇠 이론을 방문 수요(양)의 설명에서 체류·지출이라는 성과의 질 차원으로 확장하고, 계절은 양의 문제, 근접성은 질의 문제라는 양-질의 분리 구조로 개념화하였다. 셋째, 관광객 행동 분석을 지방행정·지역발전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근교 기초지자체가 지방정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류 전환 과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국내 연구는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신창열, 2019)나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서충완·배정아, 2023)를 다룬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대체로 지자체·축제 단위의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이나 방문 규모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개별 방문객(여행) 단위의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체류·지출의 결정요인 자체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분석 수준(집계 대 개별)과 초점(정책 투입 대 성과의 결정 구조) 모두 차이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초지자체 관광과 지역경제 기여

지방분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립적 지방재정의 확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이며(서재권, 2017),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서희 외, 2026; 윤지웅 외, 2009). 관광은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 그 지역 기여는 방문객 지출이 지역산업연관을 통해 생산·소득·고용으로 파급되는 데서 실현된다(신창열, 2019).

이 지점에서 근교 기초지자체는 구조적 역설에 놓인다. 수도권 근접성은 방문 규모를 키우는 이점이지만 동시에 당일화를 유발하여 방문자당 지역경제·재정 기여를 제약한다. 즉 방문 규모와 재정 기여가 괴리되며,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는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유입된 방문을 체류로 전환하여 지역 소비·고용·세외수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접성의 역설을 실증하고, 무엇이 체류·지출을 결정하는가라는 지방정부 정책의 개입 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 기여의 크기는 방문객 수 자체보다 방문객당 지출과 체류에 좌우된다. 숙박을 동반한 체류 방문객은 당일 방문객보다 식음·숙박·활동 지출이 크고 지역 내 소비 접점이 많아 지역경제·지방재정 기여가 크며, 지역 단위 관광 파급효과 분석들도 방문객 지출 규모가 지역 생산·고용 효과를 좌우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일 편중이 심한 근교 기초지자체는 방문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실익이 제약되며, 당일 방문을 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정부 관광정책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는 지방행정 분야에서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부상한 생활인구·체류인구 논의와 직결되는데 지역 문화관광 재정 지출이 방문자 수와 소비는 늘리되 체류시간은 유의하게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실증(서충완·배정아, 2023)은 방문 규모의 확대가 곧 체류 기반의 지역 기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천 관광을 대상으로 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가 방문객 유입과 소비를 좌우하고(고현중, 2025),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영향을 미침이 읍면동 단위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현중·장예원, 2026).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 관광 성과의 결정요인 연구의 연장선에서 방문객의 근접성·세대라는 수요측 요인이 근교 기초지자체의 체류·지출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계절성과 세대

관광의 계절성은 수요가 연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성수기 혼잡과 비수기 유향을 유발한다. 다만 계절 편중의 강도는 관광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에 인접해 연중 접근이 용이하고 자원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는 근교 관광지는 계절 편중이 약할 수 있다.

국내 계절성 실증연구가 계절성이 뚜렷한 강원·제주에 집중되어 온 반면(양희원·송운강, 2013), 계절 편중이 약한 수도권 근교 지자체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절성이 약하다면 방문의 시점 분포를 재배분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지므로 근교 지자체에서 계절이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계절에 따라 관광 성과(체류·지출·만족)가 달라질 것이다.

한편 세대는 관광 소비행동을 가르는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다. 코호트 이론에 따르면 형성기의 공유 경험이 세대별로 구별되는 소비 성향을 낳으며(Mannheim, 1952; Ryder,

1965), 디지털·경험 지향이 강한 청년 세대는 몰입형·체류형 관광을 선호할 여지가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여행조사를 활용해 MZ세대 여행 시장을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최순화, 2022), 세대와 지출의 관계는 소득 등 다른 요인에 매개될 수 있으므로 세대 효과가 인구 통계를 통제된 뒤에도 유지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세대에 따라 관광 성과가 다르며, 청년층일수록 체류·지출이 높을 것이다.

3. 근접성과 체류·지출의 결정요인

거리감쇠는 두 지점 간 상호작용이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는 원리로(Tobler, 1970) 관광에서는 목적지가 멀수록 방문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로 정식화된다(McKercher & Lew, 2003; McKercher, 2008). 거리는 이동에 드는 금전·시간·심리적 비용을 대리하며, 그 시간 차원은 시간배분이론으로 설명된다. Becker(1965)의 관점에서 근거리 목적지는 이동 시간 비용이 낮아 당일형 여행으로 성립하는 반면, 원거리 목적지는 높은 시간 비용을 상각하기 위해 숙박형 여행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배만규, 1998). 기존 거리감쇠 연구가 방문 여부·수요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이를 체류·지출이라는 성과의 질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근거리 방문객은 당일형 상품으로 숙박·식음 지출을 최소화하는 반면 원거리 방문객은 체류형 상품으로 보완재 소비가 크므로 근접성은 방문자당 체류·지출을 함께 억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근접성이 높을수록(수도권 거주) 체류·지출이 낮을 것이다.

체류·지출의 여타 결정요인은 이론적 기제로 설명된다. 체류일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간 제약에 좌우되며(Barros & Machado, 2010; Gökovali et al., 2007), 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수요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을 소득탄력적 재화로 보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고(Crouch, 1994; Peng et al., 2015; Brida & Scuderi, 2013), 가구생산이론의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여 가구원수가 클수록 1인 지출이 감소한다(Thrane & Farstad, 2012; Marrocu et al., 2015). 연령의 효과는 청년이 더 적게 쓴다는 결과(Perez & Sampol, 2000)와 더 많이 쓴다는 결과(Mok & Iverson, 2000)로 상반되는데, 이는 세대-지출 관계가 소득에 의해 혼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계절성(시간축)은 방문의 양에, 근접성(공간축)은 방문자당 질에 작용한다. 그런데 근접성은 방문 규모와 성과의 질에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수도권 근접성은 방문객 유입을 늘려 방문 양을 키우지만 동시에 당일화를 유발해 방문자당 체류·지출이라는 질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교 기초지자체에서는 방문 규모가 곧 지역경제·재정 기여로 이어지지 않는 괴리, 곧 근접성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관광정책이 방문객 유치가 아닌 체류 전환을 지향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명제] 근접성의 역설. 근접성은 방문 규모(양)를 늘리는 동시에 방문자당 체류·지출(질)을 낮추어, 방문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가 괴리된다.

이 명제는 근접성이 양과 질에 상반되게 작용하는 하나의 복합적 현상을 포착하지만 방문 규모는 회귀 종속변수가 아닌 방문객 구성의 기술통계로 확인된 값이다. 이에 따라 이를 단일한 점평가설로 설정하기보다 근접성 가설(가설 3)의 점정 결과와 방문객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술통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해석적 명제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근접성의 역설은 그 결과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종합하는 명제로 위치하였다.

III. 연구설계

1. 분석자료와 분석단위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민여행조사」의 응답 단위 원자료를 활용한다.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회복기 이후인 2022~2025년 4개 연도이며, 2018년 조사체계 개편 이후 동일 설계에 속해 통합에 따른 단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자료의 응답자 단위 구조를 여행 단위로 재구조화하고, 한 여행의 방문지 중 하나라도 강화면 강화 방문 여행으로 정의하였다(4개년 통합 1,004건). 지출·여행일수·숙박은 여행 단위로 기록되므로 여행이 분석단위로 적절하였다.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은 강건성 점검으로 확인하였다. 강화 방문 여행의 98.6%에서 강화가 첫 방문지였으며, 주 목적지=강화로 한정해도 숙박 비율(21.2%)·지출(80,798원)·계절 지니(0.050)가 방문지 포함 기준과 사실상 동일하였다. 즉 강화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방문

되는 관광지이며 결과는 정의에 둔감하였다. 하지만 국민여행조사의 숙박·지출은 여행 전체를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강화를 포함한 다목적지 여행에서는 해당 숙박·지출이 강화가 아닌 다른 방문지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강화 방문 여행의 숙박 여부 및 1인 여행지출로 명명하여 그것이 강화에 국한된 값이 아닌 강화를 포함한 여행 전체의 값을 명확히 하며, 숙박·지출을 강화에 귀속할 수 있는 단일목적지 여행(강화가 유일한 방문지, 전체의 74.2%)으로 제한한 강건성 분석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2. 변수와 연구모형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체류(숙박)와 지출이며, 만족을 보조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근접성·세대이고, 인구통계(성별·가구소득·학력·가구원수)를 결정요인으로, 여행유형과 계절을 통제·검정 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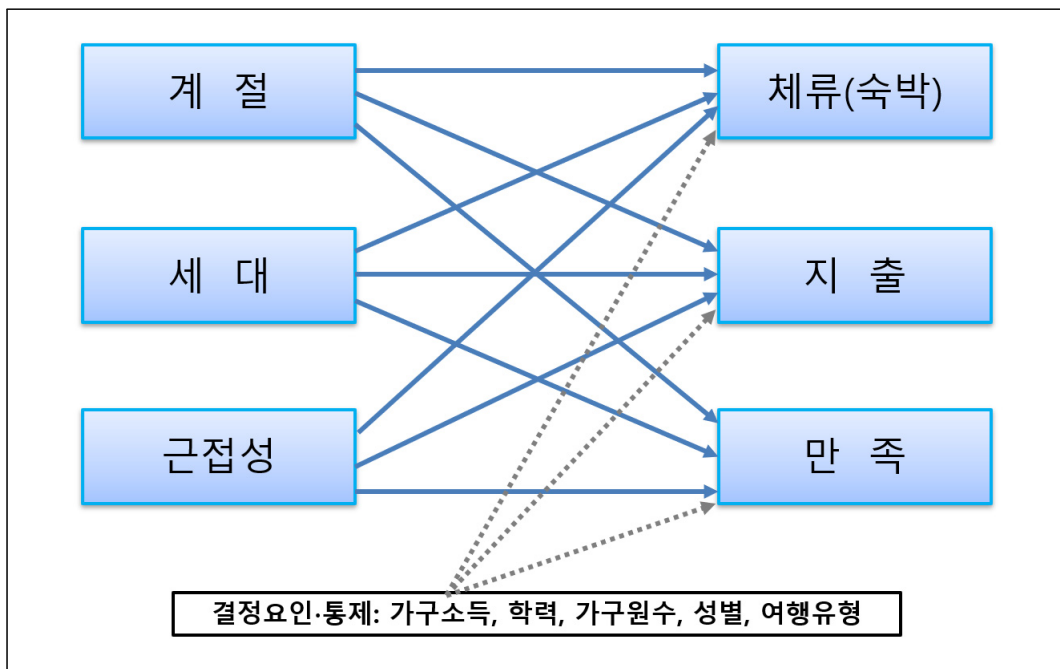
구분	변수	측정(응답 범주)	코딩·투입
종속 변수	체류	숙박 여부	더미(숙박=1, 당일=0)
	지출	1인 여행 지출액(원)	로그 변환(연속)
	만족	전반적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연속(5점)
설명 변수	근접성	거주지역(17개 시/도)	더미(수도권=1, 그 외=0)
	세대	연령대	3범주 더미(기준: 2030) * 2030, 4050, 60 이상
결정 요인	가구소득	7등급 (① 100만 미만 ~ ⑦ 600만 이상)	연속(1~7): 범주형
	학력	4등급 (① 초졸 이하 ~ ④ 대학 이상)	연속(1~4): 범주형
	가구원 수	3등급 (① 1인 ② 2인 ③ 3인 이상)	연속(1~3): 범주형
	성별	남 / 여	더미(여성=1, 남성=0)
통제 변수	여행유형	여행유형	더미(관광/휴양=1, 그 외=0)
	계절	여행 시작월	4범주 더미(기준: 봄) * 봄, 여름, 가을 겨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설명변수는 계절·세대·근접성이며, 종속변수는 체류(숙박)·지출·만족이다. 가구소득·학력·가구원수·성별 등 인구통계 결정요인과 여행유형은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강화 관광의 계절성이 약하다는 예비 분석과 근거리 관광의 당일화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관광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계절이 아니라 근접성·세대라고 보았다.

더불어 관광 지출 결정요인 문헌에 근거하여 공변량으로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1인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근접성이 방문 규모(양)를 늘리는 동시에 방문자당 체류·지출(질)을 낮춘다는 근접성의 역설은 정식 검정가설이 아닌 명제로 다루었다. 방문 규모(양)는 본 연구의 회귀 종속변수가 아닌 기술통계(방문객의 수도권 집중도)로 확인되는 값이므로 연구모형에는 별도 경로로 표시하지 않으며, 근접성 가설(가설 3)의 검정 결과와 방문객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술통계를 종합하여 이 명제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행렬로 변수 분포와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방문 규모의 계절 집중은 지니계수·변동계수·계절성 지수로 측정하고, 균등분포 대비 적합도 검정과 준거 지역(전국·인천·제주·강원) 벤치마크, 응답자 재표

집 부트스트랩(800회)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계절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과 효과크기(η^2 ·Cohen's f)를 병기하고 지출은 로그 변환으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체류·지출 결정요인은 근접성→세대→인구통계→통제·계절을 순차 투입한 위계적 회귀(모형 1~4)로 추정하여 설명력 증분(ΔR^2)과 AIC로 모형을 비교하고, 분산팽창계수(VIF)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모든 추정은 가중치와 응답자 군집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한 복합 표본 근사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승인통계 원자료를 시군구 단위로 활용하여 일차 설문에 의존해 온 기존 연구의 대표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결정 구조의 강건성을 단일 모형이 아닌 다중 방법의 삼각검증으로 확보하였다. 체류는 선형확률·로지스틱·음이항으로, 근접성은 이분(수도권 거주)과 연속(거주지-목적지 거리)으로, 소표본 분리 위험은 별점 로지스틱으로 교차 확인하였다. 셋째,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준거 지역(제주·강원)과의 결정 구조 비교로 검증하였으며, 이때 근접성 효과의 부호 반전 여부는 거리감쇠 기제에 대한 일종의 반증 설계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다각 검증을 통해 횡단면 관찰자료의 인과 식별 한계를 방법론적으로 보완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 집중은 지니계수와 균등분포 대비 적합도 검정으로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본래 소득 불평등을 요약하는 지표로 이를 월·계절 방문 분포에 적용하면 편중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GoF 검정은 관측 분포가 균등분포와 통계적으로 구별되는지 판정한다. 둘째, 체류·지출의 결정요인은 위계적 회귀로 추정하였다. 이는 설명 변수군을 이론적 순서(근접성→세대→인구통계→통제)로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수군의 순수한 설명력 증분(ΔR^2)을 분리하고 모형 간 AIC를 비교할 수 있어 어떤 요인이 주로 성과를 좌우하는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셋째, 체류는 이분변수(숙박 여부)이므로 계수를 확률 변화로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선형확률모형을 주 모형으로 설정하되 분포 가정에 부합하는 로지스틱·음이항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교차 확인하였다. 넷째, 비수도권 표본이 소수여서 발생하는 준완전분리 문제는 계수를 안정화하는 L2 별점 로지스틱으로 대응하고, 이분적 근접성 지표의 한계는 거주지-목적지 근사거리를 연속 투입한 거리모형으로 보완하여 거리감쇠를 연속 척도에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절 지니계수의 표집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응답자 재표집 부트스트랩으로 비모수적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강화 방문 여행 1,004건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속변수에서 1인 지출은 평균 88,803원이나 표준편차 79,934원, 최댓값 800,000원으로 심하게 우편향되어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만족도는 평균 4.18점에 최솟값 3점, 표준편차 0.40으로 천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변수에서 방문객의 93.2%는 수도권 거주자이고, 여성은 56.2%, 관광·휴양 목적 85.9%, 대졸 이상 학력이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변 수		M	SD	Min	Max
연속·서열변수 (표본, 비가중)	1인 지출(원)	88,803	79,934	10,000	800,000
	여행일수(박)	0.29	0.60	0	9
	만족도(5점)	4.18	0.40	3	5
	가구소득(1~7등급)	5.23	1.61	1	7
변 수		구성(비율)			
범주 변수	근접성	수도권 93.2%, 비수도권 6.8%			
	성별	여성 56.2%, 남성 43.8%			
	세대	2030 30.6%, 4050 40.4%, 60이상 27.5%, 15-19 1.5%			
	학력	대졸이상 57.8%, 고졸 36.8%, 중졸 4.1%, 초졸이하 1.4%			
	가구원수	3인이상 53.6%, 2인 28.5%, 1인 17.9%			
	여행 목적	관광·휴양 85.9%, 방문·기타 14.1%			
	계절	봄 25.3%, 여름 22.9%, 가을 27.1%, 겨울 24.7%			

4개년 통합의 타당성을 위해 주요 변수를 연도별 비교한 결과 1인 지출(84,561~93,051원)·박수(0.27~0.31)·수도권 비율(91~95%)·가구소득 등 주요 변수의 분포가 연도 간에 유사하여 통합이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본 숙박 비율은 2022년 26.7%에서 2025년 21.7%로 완만히 감소하여 회복기 동안 당일 편중이 다소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 연도별 주요 변수 비교 결과

연도	N	1인 지출 M(SD)	박수 M	숙박 비율	수도권 비율	가구 소득 M
2022	217	88,684(94,413)	0.31	26.70%	91.20%	5.16
2023	260	84,561(76,257)	0.29	24.60%	95.00%	5.13
2024	260	88,783(70,033)	0.29	25.00%	93.50%	5.37
2025	267	93,051(79,881)	0.27	21.70%	92.90%	5.27
통합	1,004	88,803(79,934)	0.29	24.40%	93.20%	5.2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체류와 지출은 강하게 정적으로 관련되며($r=.62$, $p<.001$), 두 성과 모두 수도권 거주와 뚜렷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각 $-.45$, $p<.001$). 설명변수 간에는 연령대와 학력($-.62$), 가구소득과 가구원수($.64$)가 다소 높았으나 VIF가 모두 2.4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분	체류	지출	수도권	연령대	소득	학력	가구원수	성별
지출(log)	.62***							
수도권	-.45***	-.45***						
연령대	-.09**	-.05	-.05					
가구소득	-.01	0.01	.13***	-.28***				
학력	0.03	.08*	.12***	-.62***	.39***			
가구원수	0.05	-.09**	0.06	-.17***	.64***	.18***		
성별	0.02	-.05	0	0	0.01	-.14***	0.04	
관광유형	-.08*	0.03	0.06	-.00	0.05	0	0.05	0.02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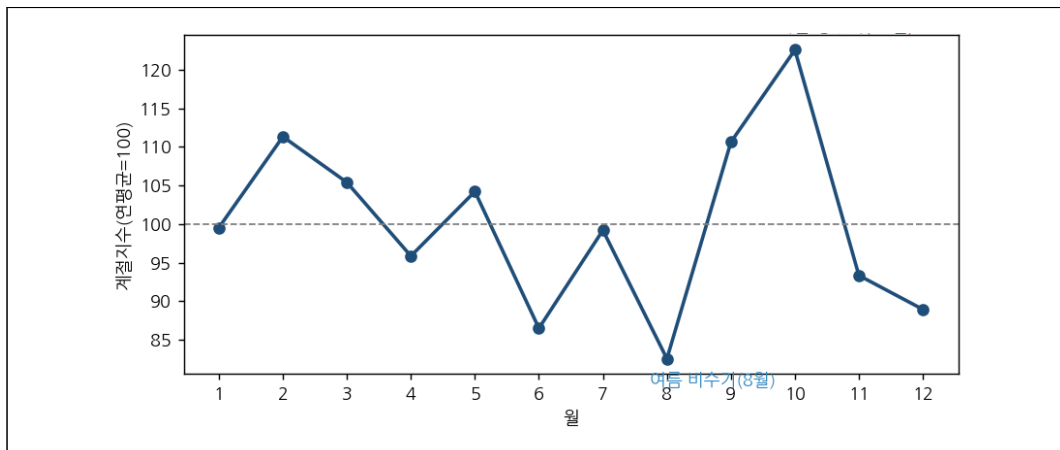
2. 당일 편중과 계절성

강화 관광의 지배적 특징은 극심한 당일 편중이다. 가중 숙박 비율은 21.7%(평균 0.29박)로 약 78%가 당일 관광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절 집중은 미미하였는데, 〈표 5〉, 〈그림 3·4〉와 같이 강화의 계절 분포는 균등분포와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았으며(계절 적합도 $\chi^2=3.59$, $df=3$, $p=.310$; 월별 $\chi^2=11.22$, $df=11$, $p=.425$), 계절 지니계수도 0.050으로 계절형 관광지인 강원(0.0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에서 강화는 전국(0.010)보다는 유의하게 높았으나(차이 +0.040, 95% CI [0.011, 0.092]) 이는 전국이 극단적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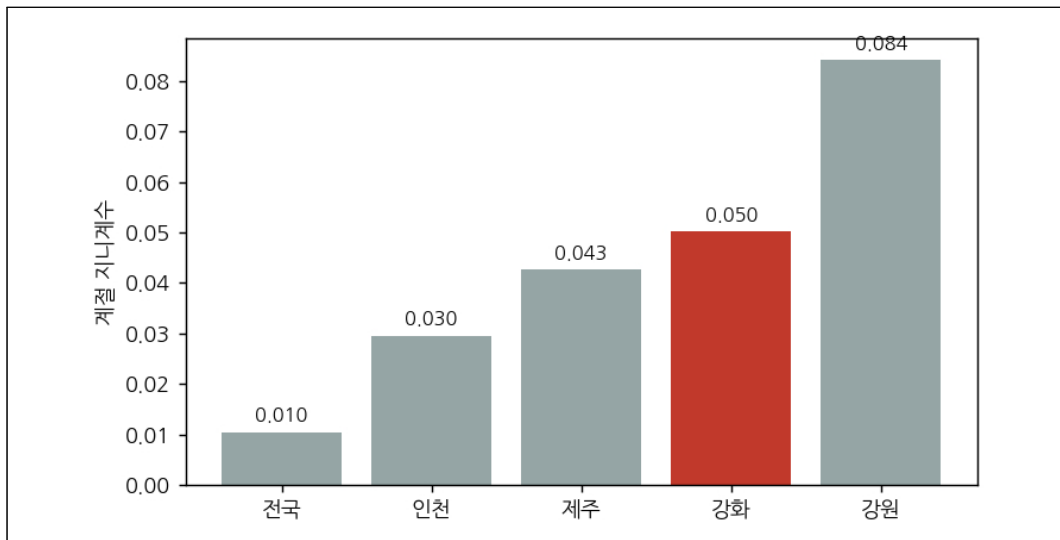
탄한 데 따른 상대적 차이일 뿐, 강화 자체는 균등과 구별되지 않았다.

계절 집중도 비교 준거로는 전체 평균의 기준선인 전국, 강화가 속한 광역이자 동일한 수도권 근교 유형인 인천, 그리고 계절형 관광지의 대표인 제주·강원을 함께 사용하여 강화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가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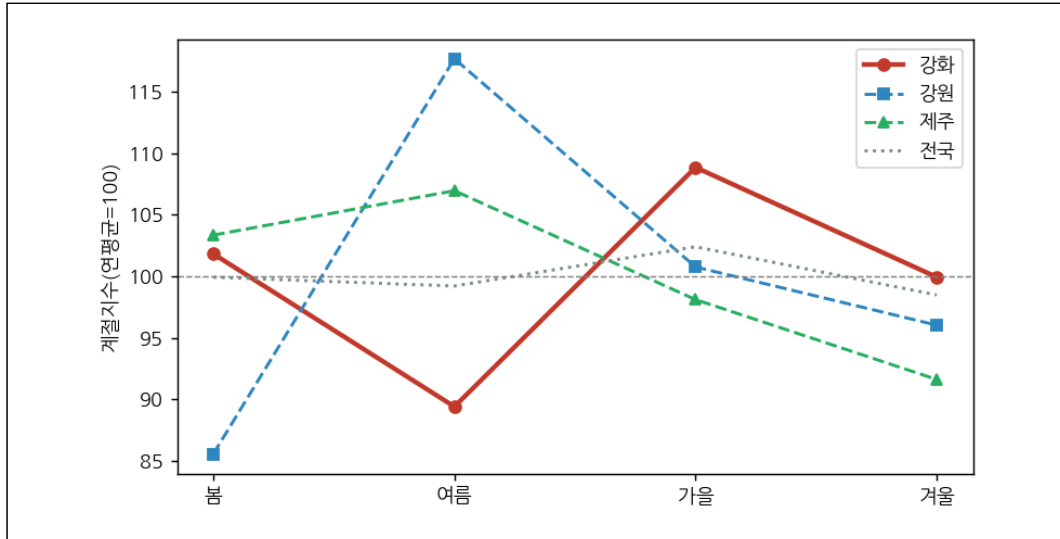
〈그림 2〉 강화 월별 계절지수



〈그림 3〉 지역별 계절 집중도(지니계수)



〈그림 4〉 지역별 월별 계절지수 프로파일



〈표 5〉 지역별 방문 규모 계절 집중도

지역	표본	계절 지니	월 지니	변동계수	계절 GoF (χ^2 , p)
전국	111,236	0.01	0.03	0.017	20.15***, $p < .001$
인천	2,965	0.03	0.033	0.048	2.48, $p = .478$
제주	4,341	0.043	0.047	0.067	13.95**, $p = .003$
강화	1,004	0.05	0.068	0.08	3.59, $p = .310$
강원	11,417	0.084	0.102	0.134	150.83***, $p < .001$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아가 계절은 방문자당 성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계절이 지출·체류·만족을 설명하는 효과 크기는 모두 미미하였으며(Cohen's $f = 0.02 \sim 0.06$), 우편향을 보정한 로그 지출에서도 계절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198$, $f = 0.071$). 즉, 강화의 계절성은 방문의 양에도 질에도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화가 계절 편중이 약한 저계절성 근교 관광지임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성수기 분산보다 당일 편중의 체류 전환이 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3. 체류·지출 결정요인과 강건성

체류와 지출의 결정요인을 근접성(모형 1)→세대(모형 2)→인구통계(모형 3)→통제·계절(모형 4)의 순으로 위계적으로 투입하였다.

두 성과 모두 근접성 단독(모형 1)이 설명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체류 $R^2=.104$, 지출 $R^2=.128$). 체류에서는 세대 투입(모형 2)이 유의한 증분을 더하나($\Delta R^2=.016$, AIC 최소 =1,042) 인구통계·계절은 거의 기여하지 않아 간명 모형은 근접성+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에서는 인구통계 투입(모형 3)이 뚜렷한 증분을 보이며($\Delta R^2=.025$), 완전모형(모형 4)의 AIC가 최소(1,737)로 인구통계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완전모형(모형 4)의 결정요인 추정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체류는 근접성(수도권 거주 시 강한 억제)과 세대(청년일수록 높음)가, 지출은 근접성·가구소득·가구원수가 결정하였다. 특히 지출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계수는 -1.220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1인 지출이 비 수도권의 약 30% 수준임을 뜻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쓰고($\beta=+0.059$), 가구원수가 클수록 1인 지출은 낮아지는데($\beta=-0.15$) 이는 집단여행의 규모의 경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들의 VIF는 1.01~2.35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6> 체류·지출 결정요인 (완전모형, 가중·균집강건)

변수	체류 LPM: B (SE)	지출 로그: B (SE)	VIF
근접성(수도권)	-0.746*** (0.047)	-1.220*** (0.088)	1.03
세대: 4050 (기준 2030)	-0.090* (0.037)	-0.030 (0.050)	2.4
세대: 60+ (기준 2030)	-0.122** (0.044)	-0.065 (0.065)	1.6
가구소득	-0.012 (0.011)	+0.059*** (0.016)	2.04
학력	+0.010 (0.026)	+0.058 (0.041)	1.93
가구원수	+0.043 (0.022)	-0.150*** (0.032)	1.78
여성	+0.016 (0.028)	-0.047 (0.040)	1.05
여행유형(통제)	-0.081 (0.043)	+0.090 (0.059)	1.01

주: * $p<.05$, ** $p<.01$, *** $p<.001$

주목할 정교화는 세대→지출 관계다. 세대는 모형 2에서 지출 설명력을 유의하게 높였으나($\Delta R^2=.009$), 가구소득을 투입한 모형 3 이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완전모형 joint $p=.605$). 즉 “청년이 더 쓴다”는 이변량 관계는 실제로는 소득 차이가 매개한 것으로 소득을 통제하면 그 효과는 사라졌다. 이는 위계적 모형 비교가 드러낸 혼재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확인하였다. 국민여행조사의 숙박·지출이 여행

전체를 기준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가 유일한 방문지인 단일목적지 여행(N=745, 전체의 74.2%)으로 제한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 표본에서는 숙박·지출을 강화에 귀속할 수 있는데 숙박률은 8.2%(수도권 단일목적지 6.2%)로 당일 편중이 여행 전체 기준(숙박 21.7%)보다 오히려 더 뚜렷하였고, 근접성의 체류·지출 억제(체류 계수 -0.715, 지출 -1.009, 각 $p<.001$)와 가구소득(+).가구원수(-)의 지출 효과도 전체 표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다목적지 여행의 귀속 문제를 보정해도 핵심 결론은 견고하다. 다만 단일목적지로 제한하면 비수도권 사례가 18건으로 더 적어져 근접성의 정밀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밖의 강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작적 정의(방문지 포함 $n=1,004$ 대 주 목적지 $n=990$)와 지출의 로그 변환에도 결정 구조가 유지되었다. 둘째, 계절은 원지출·로그지출·체류·만족 어디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효과크기 $f<0.07$). 셋째, 서열변수(소득·학력·가구원수)를 범주형 더미로 재투입해도 핵심 결론이 유지되며 AIC상 연속형이 우수하였다. 넷째, 체류를 여행일수(박) 음이향으로 분석해도 수도권 억제가 유지되었고($\beta=-1.867$, $p<.001$), 비수도권 소표본($n=66$)의 준완전분리 위험은 L2 별점 로지스틱(수도권 오즈비 0.02~0.14)과 연속 거리모형으로 보완되었다. 다섯째, 거주 시도-강화 근사거리를 연속 투입하면 거리가 100km 멀어질수록 체류(로짓 계수 +2.876, $p=.001$)와 지출(로그 +0.488, $p<.001$)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거리감쇠가 연속 척도로도 입증되었다. 여섯째, 모든 VIF가 2.4 이하이고 연도별로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최댓값 2.30~2.77, 통합 2.35).

4. 가설 검정과 이질성·외적 타당도

핵심 설명변수(계절·세대·근접성)와 세 성과 간 9개 경로의 완전모형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3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6개 가설은 기각되었다.

검정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절 가설(H1a~c)은 세 성과 모두에서 기각되었다. 계절은 체류($p=.862$)·지출($p=.118$)·만족($p=.389$) 모두 유의하지 않아 계절이 방문의 시점 분포(양)에는 관여하지만, 방문자당 성과(질)와는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계절의 이러한 전면 기각은 부수적 결과가 아닌 강화가 저계절성 근교 관광지임을 실증하고 성수기 분산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대 가설(H2)은 성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세대는 체류를 유의하게 가르되(H2a, $p=.013$, 청년층이 높음) 지출에서는 소득을 통제하자 유의성이 사라졌고(H2b, $p=.605$), 만족과도 무관하였다(H2c, $p=.705$). 이는 “청년이 더 쓴다”는 이변량 관계가 실제로는 소득에 의해 매개된 것이었음을 뜻하며, 세대의 순효과는 지출이 아닌 체류 성향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근접성 가설(H3)은 체류와 지출에서 채택되었다(H3a·H3b, 각 $p<.001$). 수도권 거주는 체류와

지출을 모두 강하게 억제하여 근접성이 방문자당 성과(질)의 핵심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H3c, $B=-0.065$, $p=.261$), 이는 만족도의 천장 효과(평균 4.18)로 어떤 설명변수로도 변별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표 7〉 체류·지출 결정요인 (완전모형, 가중·군집강건)

가설	경로	효과: 계수 B	결과	p
H1a~c	계절 → 체류·지출·만족	결합검정 (개별계수 비유의)	모두 기각	.862 / .119 / .389
H2a	세대 → 체류	4050 -0.090*, 60+ -0.122** (2030 최고)	채택	0.013
H2b	세대 → 지출	4050 -0.030, 60+ -0.065	기각 (소득 통제 후)	0.605
H2c	세대 → 만족	4050 -0.013, 60+ +0.020	기각	0.705
H3a	근접성 → 체류	-0.746***	채택	0
H3b	근접성 → 지출	-1.220*** (로그, 약 -70%)	채택	0
H3c	근접성 → 만족	-0.065	기각	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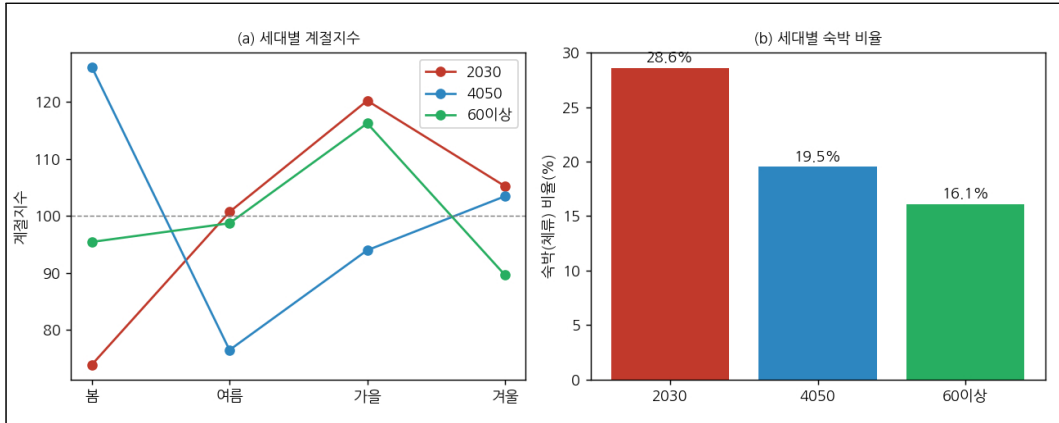
주: * $p<.05$, ** $p<.01$, *** $p<.001$

종합하면 9개 경로 중 3개(H2a·H3a·H3b)가 채택되었고 6개가 기각되었으며, 채택된 경로가 모두 체류·지출(질)에 대한 세대·근접성의 효과라는 점에서 관광 성과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계절이 아닌 근접성과 세대임이 검정으로 뒷받침되었다.

나이가 근접성의 역설 명제는 단일 경로가 아닌 이들 결과의 종합으로 평가하였다. 강화 방문객 약 93%가 수도권 거주자로 수도권 근접성이 방문 규모를 키우는 한편 바로 그 수도권 거주가 체류(가설 3a)와 지출(가설 3b)을 강하게 억제하였다. 즉 근접성은 방문의 양을 늘리면서 방문자당 질을 낮추는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방문 규모와 방문자당 지역경제 기여가 괴리되었다. 이로써 근접성의 역설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며 이는 근교 기초지자체에서 방문객 수 확대가 곧 지역경제·재정 기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대별 체류·지출·계절 분포는 〈그림 5〉와 같다. 체류(숙박) 성향은 2030세대 28.6% > 4050세대 19.5% > 60세 이상 16.1%로 단조 감소하였다. 1인 지출은 2030세대에서 가장 높았으나(86,746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소득을 통제하면 소멸하는 이변량 차이로 할 수 있다. 계절 집중은 4050세대(지니 0.132, 봄 편중)와 2030세대(0.119, 가을 편중)에서 크고 60세 이상(0.069)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세대별 성과



준거 지역으로 제주와 강원을 선정한 것은 이들이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관광 목적지로서 근거리인 강화와 목적지 거리 축에서 뚜렷이 대비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화가 기초지자체인 데 비해 제주·강원은 광역 단위여서 관광 규모·이질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비교는 관광 규모의 절대적 비교가 아닌 방문 여행 단위에서 근접성(수도권 거주) 효과의 부호가 목적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관심 대상인 부호 반전은 관광 규모의 차이에 좌우되지 않으며, 앞서의 연속 거리모형(거주지-목적지 근사거리)은 행정 단위 구분에 의존하지 않는 검증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양-질 결정 구조가 강화에 국한되는지 준거 지역(제주·강원)과 동일 모형으로 비교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경제적 결정요인인 가구소득의 정(+) 효과와 가구원수의 부(-) 효과는 세 지역 모두 같은 방향으로 유의하게 재현되어(모두 $p < .001$) 지출 결정 구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근접성(수도권 거주)의 효과는 목적지 거리에 따라 부호가 반전되었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화에서는 수도권 거주가 지출을 크게 낮추었으나($\beta = -1.220$) 원거리인 제주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beta = +0.484$) 강원은 그 중간으로 나타났다($\beta = +0.159$). 체류에서도 동일한 반전이 관찰되었는데(수도권 계수: 강화 -0.746 , 제주 $+0.143$, 강원 $+0.100$), 이는 수도권 거주가 목적지에 대한 근접성의 대리지표로서 강화에는 근거리→당일화, 제주에는 원거리→체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근접성 효과의 방향 반전은 거리감쇠 기제 자체를 지역 비교로 확증하며, 강화의 당일 편중이 근교라는 공간적 위치에서 비롯됨을 뒷받침한다.

〈표 8〉 지출(로그) 결정요인의 지역 비교

변수	강화	제주	강원
수도권 거주	-1.220***	+0.484***	+0.159***
가구소득	+0.059***	+0.081***	+0.079***
가구원수	-0.150***	-0.216***	-0.124***
N	989	4,243	11,119

주: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강화는 계절 편중이 약한 반면 근접성이 체류·지출을 좌우하는 저계절성·고당일성 근교 관광지이며, 준거 지역 비교는 이러한 결정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과 거리감쇠 기제를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로 인천 강화군의 당일 편중 구조와 결정요인을 지방행정·지역발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강화의 계절 편중은 균등분포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약하고 계절은 방문자당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강화는 저계절성 근교 기초지자체 관광지로 나타났다. 둘째, 강화 관광의 구조적 과제는 극심한 당일 편중(숙박 21.7%, 약 78% 당일)이었으며, 체류와 지출에 대해 투입 변수 중 가장 큰 설명 기여를 하는 것은 근접성이었다. 셋째, 체류는 근접성과 세대(청년층일수록 높음)가, 지출은 근접성·가구소득·가구원수가 결정하였으며, 세대와 지출의 관계는 소득을 통제하면 소멸하였다. 넷째, 준거 지역(제주·강원)과의 비교에서 소득·가구원수의 지출 효과가 재현되고 근접성 효과의 부호가 목적지 거리에 따라 반전되어 결정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과 거리감쇠 기제가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계절이 방문의 양(시점 분포)에, 근접성이 방문자당 질(체류·지출)에 작용하는 양-질의 분리 구조로 종합되며, 청년층(2030)이 체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류 전환의 유망 표적임을 알 수 있었다.

2.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지출 결정 구조를 국가통계 기반 기초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재입증하였다. 소득의 정(+) 효과와 가구원수의 부(-) 효과가 강화·제주·강원 세 지역에서 일관되게 재현되어 관광을 소득탄력적 재화로 보는 소비자 수요이론과 규모의 경제를 상징하는 가구생산이론의 지출 결정 구조(Brida & Scuderi, 2013; Thrane & Farstad, 2012; Marrocu et al., 2015)가 특정 지역·자료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지출 결정요인 연구의 결론에 대한 외적 타당도를 국내 기초지자체 맥락에서 보강하였다. 둘째, 거리감쇠 이론을 방문의 양에서 성과의 질로 확장하였다. 기존 거리감쇠 연구가 방문 여부와 방문 수요의 설명에 집중한 데 반해(Tobler, 1970; McKercher & Lew, 2003; McKercher, 2008), 본 연구는 시간배분이론(Becker, 1965; 배만규, 1998)을 접목하여 근접성이 체류·지출이라는 방문자당 성과까지 좌우함을 실증하였고, 준거 지역 비교에서 근접성 효과의 부호가 거리에 따라 반전됨을 보여 그 기제를 확증하였다. 이는 거리감쇠를 양-질 이원구조로 재정식화한 이론적 확장이다. 셋째, 세대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불일치를 정교화하여 해소하였다. 연령·세대의 지출 효과는 청년이 더 적게 쓴다는 결과(Perez & Sampol, 2000)와 더 많이 쓴다는 결과(Mok & Iverson, 2000)로 상반되었는데 본 연구는 위계적 모형을 통해 세대-지출 관계가 소득과 혼재되어 있어 소득을 통제하면 세대의 독립적 효과가 사라짐을 규명함으로써 그 불일치의 원인을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발견들은 근접성의 역설로 종합되어 근교 기초지자체에서 방문 규모와 지역경제·재정 기여가 괴리됨을 이론화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관광정책이 유치가 아닌 체류 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방문객 유치 중심에서 체류 전환 중심으로 전환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저계절성·고당일성 근교 지자체에서 계절 분산이나 방문객 수 확대 위주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으며, 이미 유입된 방문을 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경제·재정 기여를 높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숙박객의 1인 지출이 당일객의 2.54배라는 점은 체류 전환이 방문객 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 소비·고용·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재정 효율적 전략임을 뜻한다. 이는 방문객 수를 성과 지표로 삼아 온 지자체 관광정책의 평가 기준을 체류·지출 기반으로 재설정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한정된 지방재정의 배분 우선순위에 실증 기준을 제공한다. 방문객의 절대다수인 수도권 당일객의 전환은 근접성이라는 구조적 억제 탓에 난제이므로 체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층과 원거리 방문객, 그리고 소비 여력을 갖춘 층에 정책 자원을 선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가 규명한 결정요인(근접성·세대·소득·가구규모)은 지방정부가 어떤 대상에 어

편 상품·마케팅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기반 표적화를 가능케 한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유입은 지역의 생산·소비를 촉진하는 핵심으로 논의되어(임태경, 2024) 청년을 겨냥한 체류 전환은 생활 인구 확대라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광역 협력 거버넌스와 재정 자립으로의 연계를 제시한다. 근접성의 역설을 완화하는 개입은 단일 지자체를 넘어서는바 강화군은 1박형 체류 콘텐츠·숙박 인프라·야간 프로그램 등 체류 유인을 직접 조성하고 인천시는 광역 마케팅·교통 연계와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체류 전환이 낳는 세외수입과 지역경제 파급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 기반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구조가 재정 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고영준·김인태, 2026)에서 체류 전환을 통한 세외수입 기반 확충은 재정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광을 단순 진흥 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지방재정 정책의 틀에서 재설계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함의는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근교의 여타 기초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토론: 체류 전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간이 추정

본 연구의 핵심 주장(근교 기초지자체의 정책 지렛대가 체류 전환에 있다)이 갖는 지역경제적 함의를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량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강화군 귀속 지역산업연관표가 아닌 문헌 기반 예시 유발 계수를 적용한 간이 추정이므로 절대 수준보다 시나리오 간 비교와 증분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민여행조사 가중치로 추정한 연간 강화 방문 여행은 약 395만 건(내국인 국내여행 기준)이며, 1인 지출 평균은 82,292원, 연간 총 직접지출은 약 3,248억원으로 추정된다. 핵심은 지출의 체류 민감성이다. 숙박 방문객의 1인 지출(156,532원)은 당일 방문객(61,675원)의 2.54배로 체류 전환은 방문객 수를 늘리지 않고도 방문객당 지출을 배가시킬 수 있다. 당일 방문객(연간 약 309만 건)의 10%만 숙박으로 전환되어도 연간 약 293억원의 직접지출 증가가 발생하는데, <표 9>와 같이 예시 생산유발계수(1.9)를 적용하면 약 5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에 해당한다.

<표 9> 체류 전환 시나리오별 지역경제 파급(간이·예시 추정)

시나리오	증분 직접지출	예시 생산유발(×1.9)
당일객 5% 숙박 전환	약 147억원	약 278억원
당일객 10% 숙박 전환	약 293억원	약 557억원
당일객 15% 숙박 전환	약 440억원	약 835억원

이 추정은 강화 귀속 산업연관표가 아닌 예시 유발 계수를 적용하였고 지역 외 누출을 반영하지 않아 상한의 성격을 가지며, 다목적지 여행의 지출이 강화 외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강화에 실제 귀속되는 지출은 이보다 작을 수 있고, 국민여행조사가 포착하는 내국인 국내여행에 한정된다. 따라서 절대 수준은 시사적이며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소폭의 체류 전환도 상당한 지역경제 증분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우선순위가 성수기 분산이 아닌 체류 전환에 있어야 함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 식별의 한계이다. 횡단면 관찰자료에 기반하므로 결과는 인과가 아닌 연관 수준의 해석에 머물며, 근접성-체류 관계는 수도권 거주자가 강화를 애초에 당일용으로 선택하는 자기 선택을 일부 반영할 수 있어 근접성의 순수한 처치 효과로 보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는 다년도 개인·지역 패널을 구축하고, 도로·교량 개통 등 교통 접근성의 외생적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준실험 설계로 근접성이 체류·지출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 파급 추정의 정밀성 한계이다. 본 연구의 파급효과 추정(보론)은 강화군 귀속 지역산업연관표가 아닌 문헌 기반 예시 유발 계수를 적용하였고 지역 외 누출을 반영하지 못해 상한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연구는 강화군 또는 인천 지역산업연관표를 구축·연계하여 지역 누출과 산업 연관을 반영한 정식 파급분석을 수행하고, 체류 전환의 순 재정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과 자료 포착 범위의 한계이다. 단일 지역(강화)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제약이 있고, 인천 거주자의 관내 이동이 국민여행조사에 집계되지 않아 근접성의 최근접 구간이 누락되며(당일 편중 과소추정), 외국인 관광이 제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연구는 수도권 근교의 여러 기초지자체를 포괄하는 다지역 비교설계를 채택하고, 이동통신·카드 등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관내 이동·외국인 방문·목적지별 지출을 포착한다면 자료의 사각을 메우고 양-질 이원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준·김인태. (20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 「지방행정연구」, 40(1): 453-484.
- 고현중. (2025). 관광기반시설의 공간 분포가 방문객 유입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8: 243-288.
- 고현중·장예원. (2026).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읍면동 단위 내·외국인 관광객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9: 37-66.
- 김민영. (2026). 수위도시 집중에도 불구하고 제2·3도시 동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지방행정연구」, 40(2): 329-360.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 연도). 「국민여행조사」원자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배만규. (1998).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측정. 「관광학연구」, 22(2): 382-388.
- 서재권. (2017).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147-169.
- 서충완·배정아. (2023).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221-240.
- 신창열. (2019). 지역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2019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을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9(2): 199-217.
- 양희원·송운강. (2013). 관광 계절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7): 129-148. (종료면 확인)
- 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135-157.
- 이서희·유보람·최정우. (2026). 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 분석. 「지방행정연구」, 40(2): 523-556.
- 이윤희. (2018). 다문화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객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화도 전등사 이주민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2(2): 225-242.
- 임태경. (2024).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8(4): 125-154.
- 최순화. (2022). MZ세대 해외여행 시장세분화: 여행지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4): 165-184.
- Barros, C. P. and L. P. Machado. (2010). The length of stay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692-706.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rida, J. G. and R. Scuderi. (2013).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review of microeconomic model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28-40.
- Crouch, G. I. (1994). The study of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A review of finding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1): 12-23.
- Gökovali, U., O. Bahar and M. Kozak. (2007). Determinants of length of stay: A practical use of survival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8(3): 736-746.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pp. 276-322).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arrocu, E., R. Paci and A. Zara. (2015).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urism Management*, 50: 13-30.
- McKercher, B. (2008). The implicit effect of distance on tourist behavior: A comparison of short and long haul pleasure tourists to Hong Kong.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5(3-4): 367-381.
- McKercher, B. and A. A. Lew. (2003). Distance decay and the impact of effective tourism exclusion zones on international travel flow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2): 159-165.
- Mok, C. and T. J. Iverson. (2000). Expenditure-based segmentation: Taiwanese tourists to Guam. *Tourism Management*, 21(3): 299-305.
- Peng, B., H. Song, G. I. Crouch and S. F. Witt. (2015). A meta-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elasticiti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5): 611-633.
- Perez, E. A. and C. J. Sampol. (2000). Tourist expenditure for mass tourism marke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624-637.
-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Thrane, C. and E. Farstad. (2012). Domestic tourism expenditures: The non-linear effects of length of stay and travel party size. *Tourism Management*, 33(1): 126-132.
- Tobler, W. R.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 234-240.

고 현 중: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국가보훈 정책 형성 과정의 동태성 분석)를 취득하고, 인천관광공사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관광정책, 조직/인사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인천의 도시 상권 구조가 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2026), 도시 정주 인프라 시설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2026), 20·30대 공무원의 업무 자율성, 혁신 행동, 업무 성과의 구조적 관계(2026) 등이 있다(kohj2017@gmail.com).

